| 현불 논단 |

불교 언론 '통일 보도' 준비해야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통일 · 평화 갈구 뉴스 소비 많아
현안 파악보다 담론 확대 '집착'

진정한 통일, 내 · 외적 통일로 완성
정권따라 달라지는 보도 지양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위한 뉴스 있어야

佛法 바탕 '통일 언론' 불교 의무
'내적 통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모여 강의 물줄기를 이루고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듯이 통일의 과정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통일은 △통일 준비기 △통일 국면 △통일 이후시기로 구분되는 장기적 프로세스다. 진정한 통일은 외적 통일과 내적 통일로 완성되는데, 체제적 통일이 외적 통일이라면, 내적 통일은 의식의 통일이다. 즉 마음의 통일이다.

4 · 27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통일 관련 보도가 언론을 통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위협에서 촉발되어 극단으로 치닫는가 싶던 북미간 갈등국면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면서 북핵문제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로 다시 부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 · 외교적 조치와 결정들의 드라마틱한 면모는 민족통일과 평화를 갈구하는 뉴스소비자들의 주목도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뉴스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민족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기회를 잡아내는 지혜 또한 우리 민족의 몫임에 틀림없다. 통일이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나 우리 민족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와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굳이 독일통일의 경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태를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듯 비쳐진다. 언론이 북핵 현안의 본질보다는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언론이 지향해야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은 통일 과정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정 성향만을 대변하는 정파적 태도를 버림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언론의 통일 보도에 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언론의 보도태도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객관적 비판을 통하여 권력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전제조건인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견인하여야 한다.

둘째, 언론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북주민 간의 이념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서와 심리적 요인에서 오는 각종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통일 이후 우리에게 닥칠 문제이다. 언론은 체제 및 수뇌부 보도 일변도 경향을 탈피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상, 인권문제 등 보도 분야를 경제 · 문화 · 사회 · 예술 · 종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이슈화하여 통일 이후 겪게 될 각종 이질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통일 보도는 낱낱의 물방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강줄기를 따라 도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주목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으로 다뤄져야 한다.

불교 언론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화적 여론을 형성하고, 남북 신뢰를 구축하며, 국민통합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외적 통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내적 통일, 즉 남북 주민의 마음의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통일언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덕목으로 설하신 화합이야 말로 통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社說

군불교 진흥, 불교 미래 초석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0주년을 맞아 미래불교 비전을 새롭게 밝혔다.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각종 의식과 제도를 가다듬는 것이다.

군승들의 위상 강화와 전법사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설법대회 등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또 불자 장병들이 전역 후 신행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군종병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행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야전에서의 의식 집행을 위한 복제 또한 새롭게 제작하기로 했다.

한국불교는 위기에 빠져 있다.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는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불자수 감소 국면 속에 희망을 주는 곳이 있다. 바로 군포교 현장이다. 130여 군승들은 10만 군불자들을 위해 오늘도 앞장서고 있다. 전국 수계장병 불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을 상회하는 등 군불교 미래는 밝다.

군내 종교인구 감소 국면 속에서 군불자는 소폭이나마 늘고 있다. 교세 회복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위기 속에 군불교 활성화에 불교 미래까지 달려 있는 것이다.

군승 파송이 이뤄진 1968년에는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 굶주리고 가난했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있었다. 이들은 국위선양과 함께 전쟁에 내던져진 군장병들을 진영에서 위로하고 또 함께 싸웠다.

군승 파송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불교는 달라져야 한다. 군종특별교구가 제시했듯, 젊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전법을 위한 시스템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서 함께 이뤄질 때 불교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여론 절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노력이 최근 들어 동력을 잃었다. 중앙종회 관련 특위가 4월에 열기로 뜻을 모았던 공청회는 차치하고, 공식회의마저 3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오는 10월 열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얼마 못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대중의 예견이 맞아떨어진 모양새다.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교구본사주지 선거,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조계종 선거법에 대한 대중의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수 년 전부터 금권선거 · 야합정치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왔으며, 이로 인한 징계사례 또한 줄을 이었다.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쳤다.

이 같은 문제는 조계종 현행 선거형태인 간선제로 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321명이라는 소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중공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이 때문에 직선제나 확대간선제 등의 다른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선거제를 악용하는 개개인의 문제라는 주장 등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종단차원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상 이제 공은 제17대 중앙종회로 넘어갔다. 16대 중앙종회가 논의한 내용을 차기 중앙종회가 다시 다룰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선 대중의 여론이 필요하다. 종도의 목소리가 모여 종단을 경책하는 준엄한 죽비로 표현되길 고대한다.



기자칼럼
박진형 취재부 기자

종교시설 투표소, 과연 필요한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부활했다. 이번 지방선거 종교시설 투표소는 총 5곳으로 △전남 보성군 M교회 △서울 동작구 D교회 △경기 안양시 Y교회 △충북 청주시 C교회와 S교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다시 선거일에 선교활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종교시설 투표소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꾸준히 설치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과거 종교시설 투표소는 2007년 대선에 1194곳, 2008년 총선에 849곳,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399곳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게다가 종교시설 투표소 90% 이상이 교회에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2008년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지관스님이 교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투표소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것을 넘어 선교활동이 잇달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점이다. 2008년 서울시 투표소 중 한 곳이었던 S교회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에게 커피와 차를 제공하면서 교회 홍보물을 탁자에 올려둬 빈축을 샀다. 2012년 서울시 강동구 C교회는 종교 상징물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등의 문구를 방치했고, 관악구 C성당 역시 다목적실에서 십자가를 가리지 않고 투표소를 운영하다 시민 제보로 뒤늦게 가렸다. 이렇듯 무분별한 선교행위 때문에 종교시설 투표소는 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논란은 2010년 1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지만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투표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의 입장도 일견 납득은 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이번 종교시설 투표소와 관련해 "지방선거는 투표소가 많아야 하고, 큰 공간도 있어야 한다. 주민 접근성이나 거리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각 종교시설 투표소들이 지하주차장을 갖추거나 공공기관서 협조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애당초 법 조항에서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일이다. 결국 '부득이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이 공직자들의 종교중립 의무를 해치는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단서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종교중립을 지키지 않은 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뒤따라야 대중으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종교시설 투표소 '0'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노력으로 일궈낸 이 기록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2017년 대선에서 무너져버렸다.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은 승가의 대표적인 미덕이다. 계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반성하고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는 자자와 이를 정기적으로 모여 하도록 의례화한 포살이 과연 불교계에만 필요한 것인지 모두가 고민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